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4, 요한계시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 요한계시록 34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주로 알림을 통해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목요일이고 내일 8시에 이 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되길 바랍니다. 검토 시트와 학습 가이드 도 블랙보드에 올려 여러분이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검토 세션 전에 언젠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요일이고 추가 신용 검토 세션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종 시험에 대한 검토 세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했듯이 이번 금요일이 여기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단, 제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월요일에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는 4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가 여기 있지는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와서 시험을 모니터링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나타나서 4번 시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승전까지는요. 결승전 주간 수요일, 결승전 주간 18일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기말고사에 관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 최종적으로 학습 가이드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이전 시험 사본을 보고 싶으시면 제 사무실에 들러서 가져오셔도 되고, 저에게 이메일로 요청하고 싶으시면 사본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시험을 치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네 번째 시험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세 가지 시험은 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도 저는 일주일 내내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그렇지 않으시면 금요일까지 들러서 인쇄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보고 공부할 시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최종 시험은 비록 문구는 다를 수 있지만, 또는 답안과 문제 부분은 서로 바뀔 수 있으며, 최종

시험은 4개 섹션 시험과 동일한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새로운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학기, 전체 학기의 내용은 공정하지만 4개 부분 시험에 나온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섹션 시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노트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시험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했듯이 저는 여러분이 그 시험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을 팔거나 그와 유사한 것을 팔거나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신약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매우 다른 시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험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일, 8시.

8시 이 방에서. 응, 응, 여기 젠크스 406호. 좋아요.

좋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 하고 싶은 것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무엇인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문학의 종류에 비추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감각, 그것이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비추어 보는 감각, 요한계시록을 읽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 그러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특히 학기 말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승전과 다른 모든 일을 기대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기에 우리를 지탱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힘과 인내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대해 분명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마지막 책과 성경을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읽고 싶은 소망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의도한 대로, 전달하려고 의도한 대로 현명하게 읽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은. 요한계시록. 이것은 사진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보거나 연구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알브레히트 드레허(Albrecht Dreher)의 일련의 목판화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나무 조각 또는 목판화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소위 묵시록의 네 말 탄 자인데, 6장에서 처음 네 인이 떼짐과 함께 두루마리의 인이 떼질 때, 다른 색깔의 말이 탄 자가 타고 현장으로 나간다. 요한의 비전. 그러나 이 목판화는 계시록의 잘 알려지고 유명한 표현, 시각적 표현 중 일부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며 매우 영향력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것이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읽혀지고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두 가지 매우 일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응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지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한 책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과 연관시킬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중 일부와 동일시할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어디에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머리와 이빨이 사자 같고 꼬리가 전갈 같은 메뚜기의 환상을 묘사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이 그걸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유혈 사태와 학살 장면, 그리고 그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그것이 읽혀지는 모든 다양한 방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진입 금지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이 봉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요한이 환상에서 봉인되지 않은 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에게 계시록은 봉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거나 여전히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출입 금지 또는 주의 표시가 책 주위에 감겨 있는 노란색 주의 테이프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책에서 멀리 떨어져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존 칼빈처럼 뛰어난 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신학자였던 그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신약성서의 주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썼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조언과 인도를 따랐더라면 더 잘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접근 방법 중 하나는 단순히 그것을 무시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인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읽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 활동과 모든 에너지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컴퓨터와 Google Revelation(계시록) 또는 Apocalypse(묵시록)로 돌아가면 전체 웹사이트와 전체 사역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Tim LaHaye와 Jerry Jenkins가 제작한 Left Behind 시리즈입니다.

분명히 허구이지만,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이 결국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상황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작가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책을 찾고, 사역과 웹사이트를 찾고, 요한계시록에 거의 집착하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21세기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살펴보고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서 읽은 내용과 어떻게 들어맞는지 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알아내려는 거의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1세기에 독특하지 않은 두 가지 극단입니다. 사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기독교 정경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시록에 대한 특징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확실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거나, 또 너무 집착하고 매료되어 계시록 외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미리 기록된 일종의 대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해 모자를 살짝 기울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우선 요한계시록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신약성서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다뤄야 합니다. 즉,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저자가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주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비록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교회의 매우 구체적인 위기와 문제,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독자층에 대한 계시록도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1세기의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일련의 상황을 다루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나 베드로전서나 다른 책들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구성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잘 알아야 할 어떤 사람들이 신약성서의 모든 책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즉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의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나 베드로가 원래의 상황과 상황은 무엇이었는가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당황합니다. 또는 요한이나 누구든지 연설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도달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들은 미리 쓰여진 일종의 21세기 대본처럼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제쳐두고 우리 시대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책이 쓰여졌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1세기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에 기록된 비전을 가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었을 것이며, 그가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나의 상황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책이 21세기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출간된 원래 상황이 어떠했는지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 그것이 다루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성취하려고 노력했나요? 그렇다면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이 나온 배경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John이 처음에 앉아서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선, 작가와 날짜에 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John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이 책을 썼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장에서 자신을 John, 즉 저자 John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1세기에 요한의 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 학자들은 때때로 이 요한이 정확히 누구였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4복음서와 요한 첫째, 둘째, 셋째 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 이었는가? 같은 존인가요? 그것은 강력한 가능성이며 그 뒤에는 다시 매우 일찍 나타나는 강력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저자는 바울이 자신의 책을 쓸 때 했던 것처럼 사도의 권위를 결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한 가지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예언이나 터무니없는 비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자신을 밝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으며, 바울처럼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수의 신약성서 문서가 저자가 성경을 쓰고 있다는 의도 없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누가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세요. 힌트가 없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경우, 저자 요한이 누구였든, 그가 사도 요한이던 아니면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다른 요한이던 간에, 저자는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약성서에 필적하거나 구약성서의 선지자들과 같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이 저자가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것이 신약성서의 정경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마도 구약성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자신이 같은 수준의 권위로 그리고 구약의 예언적 증언의 성취와 완성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누구든지, 다시 사도 요한이든지, 초대 교회에 잘 알려진 다른 요한이든지, 그는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을 모두 검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날짜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견해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마지막 10년의 마지막 반쯤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기 95년, 96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 수업의 노트인 신약성경 노트의 맨 끝 부분으로 가면 황제 목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기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세기까지 위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서기 95년에서 96년은 요한 계시록 이 기록된 시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2세기쯤에

계시록이 그 시기에 있었다는 초기 교회의 증언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기간 동안 통치했던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통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확실히 일치한다는 다른 징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또는 요한1서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중 하나가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연대순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구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일 수도 있지만 아마 서기 75년, 76년쯤이었을 것입니다. , 당시 로마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통치되던 1세기 말엽. 자, 생각해 보면, 배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배경과 관련된 한 가지는 문학적 유형과 더 관련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상징주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독특하고 생생한 상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적 풍경 주위에는 일곱 머리의 용과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너희에게는 여자 같은 머리와 사자 같은 이빨, 머리에 금관이 있고 꼬리는 전갈 같은 메뚜기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날 때, 그것은 돌진하는 바람처럼 들립니다. 내 말은, 그게 대체 뭐란 말인가? 그래서 온갖 색깔이 가득해요. 그것은 모든 종류의 숫자와 측정값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품질에 관한 한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일종의 잔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지만, 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상징주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른 종류의 문학처럼 엄격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 그 대신, 우리는 그것의 상징적 가치를 존중하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의사소통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과학적 공식이나 발견, 뉴스 보도 등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상징성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John은 그런 책을 썼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1세기 말에 위치시키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이 이 수업의 첫 주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사실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로마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했습니다. 로마는 당시의 지배적인 제국이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더욱이, 특히 1세기 말엽에는 여전히 황제 전체나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같은 것은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종종 불편한 로마 지배와 제국의 통치라는 맥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가 증가하고 유명해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나 소아시아, 심지어 그리스 등 그리스-로마 도시의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신에게 바쳐진 신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은 황제에게 사원을 숭배하거나 헌납하는 것만 허용되었지만, 살아 있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사원을 세우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가 전달된 도시 중 하나인 에베소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현대 터키 및 기타 지역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이교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과 함께 황제에게 바쳐진 사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황제 자신이 이 사원의 건축을 승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황제는 실제로 그 사원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마을의 지방 관리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기리기 위해 이러한 사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이 특정 행사나 행사에 참여하여 감사와 명예를 표시하고 심지어 황제와 로마를 숭배하기 위해 특정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행복, 여러분의 육체적 안녕, 영적 안녕, 이 모든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감사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1세기의 도시들에도 조각상과 사원, 판화, 기타 종류의 형태로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수많은 기념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화에도 황제의 중요성과 로마가 행한 모든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 황제와 로마에 대한 충성과 충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무례와 불충의 표시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종종 박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시록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원천으로 자주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책을 주의 깊게 읽으면 계시록 독자들에게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2장과 3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아시아 또는 현대의 터키.

그리고 당신이 아는 몇 가지. 그 중 하나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의 잃어버린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다른 하나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곱 통의 편지 중 오직 두 교회, 혹은 그 편지 중 두 통만이 어떤 종류의 괴롭힘이나 박해를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황제 차원의 기독교인 파괴 시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박해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반드시 도미티아누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박해, 학대, 괴롭힘은 그리스도인과 모든 사람이 로마에 대해 적절한 존경과 충성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당국자들에 의해 지역 차원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독자들에게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려주는 일곱 개의 편지를 읽을 때, 그 일곱 교회 중 단 두 교회만이 어떤 종류의 학대와 박해를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주요 문제는 소아시아 도시들입니다. 그 일곱 도시 중 소아시아 도시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더 유혹을 받았고, 주요 문제는 로마 통치나 제국 통치와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이사를 숭배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버가모의 잃어버린 편지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중 한 명. 실제로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끌려나와 참수형을 당하고 처형당하는 등의 광범위한 박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박해는 괴롭힘의 형태로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버가모의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소아시아 도시의 주요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도시가 로마 통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로마 통치의 긴 팔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대부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도시는 모두 대부분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고 심지어 숭배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행한 모든 일과 로마가 행한 모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로마와 황제는 세상의 구세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타협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면서도 여전히 로마에 신실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가이사를 숭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곤경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곤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때문에, 가이사 숭배와 그리스도만을 숭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괴롭힘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거나 타협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루는 주요 문제는 박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루는 주요 문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이 도시들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안주와 타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이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신전의 유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교도 신들을 위한 다른 이교도 사원과 함께 황제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선교여행 지도이다. 그러나 도시들, 서머나는 언급된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시들은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역시 로마 통치와 제국 및 황제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박해가 아니고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독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숭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감동적인 환상과 이상한 상징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독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는 이교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언을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가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1세기

독자들이 로마에 운명을 걸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교 제국인 로마에 그들의 신뢰와 신뢰, 예배와 충성을 둔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더라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고통을 겪었으며 John은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격려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기 초에 신약성서의 문학 장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말한 것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일종의 독특한 혼합 형태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문학적 유형이 한 권의 책에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계시록이 분명히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묵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종말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유형의 문헌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입니다.

종말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가 붙인 제목만 보면, 종말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환상적인 경험에 대한 1인칭 서술형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독자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기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 사람이 가졌던 비전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모든 생생하고 이상한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저자가 비전을 가졌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비전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하신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 비전을 기록합니다.

묵시록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지만 독자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가서 연극을 보면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보고 연극의 다양한 장면과 다양한 움직임과 대화를 듣고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무대 환경에서는 연극 뒤에 큰 커튼이 있고 그 커튼을 들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뒤에는 감독이 있고, 의상 디자이너와 사람들이 의상에서 의상으로 갈아입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세트를 내려놓고 설치하는 세트 담당자가 있습니다. 비록 커튼 뒤를 볼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관찰할 때 연극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다.

대재앙이 드러나고, 커튼이 걷히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무대 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최초의 기독교인들의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지도로 간단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보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제국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은 제국 통치의 모든 징후와 그들이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압력, 심지어 로마 제국에 대한 숭배입니다. 계시가 묵시록으로 작용하는 것과 묵시록이라는 단어는 폭로 또는 베일을 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커튼을 들어 올려 그들이 1세기 세계의 무대 뒤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뒤에는 온 하늘의 세계와 역사가 나아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4-5장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피조물이 있는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을 본 후에 John은 돌아가서 자신의 세계를 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만적입니다. 예, 로마는 눈에 띄게, 경험적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의 통치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반드시 감지할 수 없는 배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보좌에 앉아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코스모스.

그리고 결국 나의 존재가 나아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고 다스리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따라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요한은 자신의 1세기 존재와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가 전부는 아닙니다.

카이사르는 최종 권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왕이 그의 보좌, 즉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요한이 본 무대인 1세기 소아시아와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가 이 환상을 보게 되면 커튼이 걷혀져 1세기 뒤와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가 전부는 아닙니다. 소아시아에서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온 하늘 세계가 있고, 만물이 나아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무장한 John은 독자들에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생활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하는 일입니다. 앞서

건너뛰고 싶은 또 다른 문학적 형태인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편지의 형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울의 편지 중 하나처럼 끝나고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죄송합니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바울의 서신,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가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하고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에도 이해했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또, 편지입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회는 그들의 문제와 상황을 새로운 빛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계시록은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 이것은 예언이고, 이것은 종말이다'라고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것이 편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John은 편지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말하고 그들의 특정 상황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독자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즉 로마 통치와 황제 숭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이미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뒤집어서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래의 천국을 보여 주지만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아마도 상징적 언어는 인간의 감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일종의 신비한

유형의 언어, 즉 요한 계시록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게 하는 상징주의를 요구하는 정보에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즉, John은 이 편지를 쓸 때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정도 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은 중동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도하는 CNN 뉴스를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미술관을 산책하면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상징적 묘사, 책 전반에 걸쳐 John의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일련의 예술적, 환상적 묘사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입니까? 그러나 때로는 단지 요점을 파악하고 느끼고 반응하기 위해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John의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의미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 장, 다양한 환상을 해석하는데, 이 책의 의미는 요한이 의도한 것이어야 하며 그의 독자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요한계시록은 마치 요한이 앉아서 수정구슬을 바라보며 미래를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앉아서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21세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가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은 저자가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요한이 의도할 수 없었던 계시록 해석과 1세기 독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계시록 해석이 아마도 거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람들이 이것이 핵전쟁을 지칭하거나 오사마 빈 라덴을 지칭하거나 컴퓨터 또는 계속해서 바코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존이 정말로 그런 의도를 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마음속에 위험 신호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다른 책들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선, 이 책이 1세기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했을 것 같은가? 1세기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저자 요한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1세기 소아시아, 컴퓨터와 열핵탄두, 헬리콥터가 없었던 기술 이전의 1세기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네, 문제는 때때로 자신들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예언하는 것처럼 보였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내 말은, John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이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말함으로써 제가 방금 말한 것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요한이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 특히 다니엘이 한 일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매우 유사한 책인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많이 인용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본 후 천사로부터 이 책의 내용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나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요한은 천사로부터 “때가 지금이니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일은 독자들의 시대에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예언했던 것이 이제 성취되고 있으므로 요한은 이것을 봉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1세기 독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John은 모든 의미와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될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고 있을 때, 심지어 그가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건들조차 묘사할 때, 그가 그것을 묘사할 때, 그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탱크나 헬리콥터 같은 21세기의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세기의 상황과 구약성서에서 나온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무보다 숲을 놓치지 마세요. 모든 세부 사항과 모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너무 꼼짝 못하게 되어서 주요 메시지를 놓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예배,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우리가 말하는 암호처럼 취급하려고 할 때 이것이 21세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상세한 대응을 살펴보고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개별 나무와 숲을 조사하는 데 너무 열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는 비전의 작은 세부 사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모두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만,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에 너무 집착하고 집착하면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 즉 거룩한 삶에 대한 권고를 놓치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삶과 순종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의 고통을 요구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적당한 겸손은 미덕입니다. 거리 때문에, 또 누군가의 우편물을 읽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이미지와 상징으로 소통하는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둘러싼 모든 논란과 책이 해석되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책에 접근해야 하며, 책을 읽도록 배웠던 방식이나 과거에 읽었던 방식을 수정하는 데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다른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읽기에 관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난 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책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해하여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종종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체계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일반적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이 책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분류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에는 네 가지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과거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주석이나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읽고 그들이 과거론적 관점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과거주의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사건들만을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1세기 이외의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기본적으로 1세기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1세기 상황에 대한 일종의 해설입니다. 즉 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과거주의적 견해로 알려진 이 견해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1세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역사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더 이상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계시록이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예측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접근 방식은 역사 전반에 걸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적으로 3세기나

4세기에 시작하여 심지어 19세기와 20세기까지 중요한 사건이나 운동, 이데올로기, 사고 방식과 노선이 필요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정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리 쓰여진 역사책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머리 꼭대기에서 바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접근 방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역사서로서 역사의 주요 움직임과 사건을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그래 맞아. 좋아요.

마지막에 이르고 아직 끝이 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역사와 사고, 기술 등의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이 견해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세 번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이 말하는 것은 계시록이... 계시록은 특정 사건이나 역사의 어느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악 사이의 전쟁을 장대하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상 여러 번 사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상징적 그림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세기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악 사이의 투쟁에 대한 일종의 일반적인 상징적 견해일 뿐이므로 교회 역사의 어느 시대든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호는 이상적인 기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호일 뿐입니다.

이상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장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상징적인 그림일 뿐입니다. 1세기 요한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 적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더 많은 상황에 적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마지막 접근 방식은 미래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이후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내용은 미래 어느 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겨진 시리즈가 여기에 적합할 것이지만, 미래학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계시록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종말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예측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계시록이 주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과 그 재림을 포함하여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전히 주장할 것입니다. 즉, 이전주의자의 견해는 계시록의 모든 것이 이미 있다고 말할 것이고, 미래주의자는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계시록은 아직 아닌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그것을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추가될 수 있고 추가되어야 하는 몇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

전반에 걸쳐 요한계시록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다면, 특히 기독교인의 접근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움직임.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여전히 매우 인기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럼 어느 것이 맞나요? 글썄, 아마도 당신은 노트의 다음 섹션인 질문인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까?'를 보고 추측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설정과 문학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든 이 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네, 계시록입니다. 저는 과거주의적 견해가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을 정당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의 1세기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세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가리킨다.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21세기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은 계시록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를 숭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1세기 독자들에게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동시에 계시록은 미래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움직이는 끝, 목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 창조를 세우시는 새 창조로 끝납니다.

따라서 미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한의 상징 중 상당수는 일종의 초월적 상징, 즉 확실히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징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1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성서에서 과거에 다른 나라들과 다른 위기들에 적용되었던 상징들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는 그것들을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상징마저도 초월적이다.

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모두 옆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만화를 보여줍니다.

진지하게, 나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몇 가지 일반적인 정치 만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지난 며칠 동안이고 또 다른 것은 지난 몇 달 동안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만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내 말은, 만약 당신이 파키스탄에 간다면 9-11이라고 적힌 우편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런 표시가 다 붙어 있는데...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면... 거기에 카메라, 즉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빈 라덴을 잡았던 기지의 사진을 찍는다면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사진이 그런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빨리. 이는 몇 달 전 March Madness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갤런당 5달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의 요점은 제가 워싱턴 DC나 어딘가에 간다면 다섯 명의 남자와 이 긴 막대를 들고 있는 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방에서 이 브래킷을 보고 문자 그대로 논평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정치 만화의 기능이 우리 삶의 사건을 솔직한 논평이나 산문이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이것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 주장하는 다소 상징적이고 과장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치 만화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요한계시록과 가장 가까운 문학적 비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편지를 읽고, 이야기를 쓰고 또 읽고, 편지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읽은 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말론을 읽거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시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치 만화는 요한계시록이 하려는 일과 가장 가까운 문학적 비유 중 하나입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한 다음 요한계시록의 두세 가지 구체적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신약 역사와 문학 요한계시록 34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였습니다.